김동수 교수의 요한이 말하는 예수
6강 유대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I. 들어가는 말

1.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 6장을 통해 사람들이 왜 예수의 말씀에 걸려 넘어졌는가를 고찰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예수의 말씀이 자신들이 기대했던 내용이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혐오하는 것이기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기대했던 것은 정치적 메시아였으나 예수님은 스스로를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생명을 주는 메시아라고 했습니다.

2. 오늘은 요한복음 7-8장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지 못했을까를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율법의 내용을 잘 몰랐던 일반 대중이 아니라 율법박사인 서기관과, 율법의 일점일획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바리새인들과, 매일 성전에서 제사의 일을 했던 제사장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일까요?

3. 오늘 우리가 말하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II.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들

1. 요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다고 말하고(5:18), 6장에서는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합니다(41절).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2. 요한복음 5-8장에서 이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예수님을 거짓 선지자로 판단합니다.

1) 예수는 안식일 계명을 어겼다(5:16; 9:16).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5:18)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9:16)

2)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 되게 여겨(5:18)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쉐마(신 6:4)의 진리를 어겼다(cf. 10:30-33).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5:18)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신 6:4)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10:33)

3) 예수와 그 무리는 율법을 알지 못한다(7:49).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4) 갈릴리에서는 [그] 선지자가 나오지 못한다(7:52).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라."

3. 이들의 주장의 요지는 예수와 그 무리들이 율법을 모르는 무식쟁이들이고, 그러면서 율법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예수는 사이비 선지자라고 한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예수를 사마리아 사람 혹은 귀신이 들린 사람(8:48; 10:20)이라고 공격합니다.

4. 물론 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들이 율법을 잘 못 해석하거나 예수의 본질에 대해서 오해했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기보다는 왜 이들이 이러한 잘못된 판단을 했을까를 더 면밀히 고찰해 보고자 합니다.

Ⅲ. 요한이 제시하는 유대인들이 올바로 판단하지 못한 이유

요한복음 7-12장에 걸쳐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율법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순수성의 문제였습니다.

1)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의지)이 없어서(7:14-17)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18절)

2) 공의가 아니라 외모로 판단함으로(7:24)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3)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8:37)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4) 진리에 선 입장보다 정치적인 판단을 함으로(11:47-50)
 -가야바: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50절)

5) 완악한 마음과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12:37-43; 5:44; 사 6:10; cf. 막 4:12ff.; 행 28:26-27; 롬 11:7-25)
 -"그러나 관원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요 12:42-43)

2. 결국, 예수는 이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8:44, 47; cf. 10:26). 누구든지 그 행동을 통해서 그 선과 악의 근원을 살펴볼 수 있는데, 이들의 악한 행위로 볼 때 이들의 행동의 근원은 마귀라는 것입니다.

Ⅳ.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 지식의 문제인가? 의지(마음)의 문제인가?

1. 요한복음 7:14-17은 이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랍비는 스승으로부터 배워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전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가르침을 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 서로 격론을 벌입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하나."(12절). 그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7:17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꾸며서] 말함인지 알리라."(ἐάν τις θέλῃ τὸ θέλημα αὐτοῦ ποιεῖν, γνώσεται...).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뜻을 행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 혹은 열망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뜻에 대한 정보를 알려고 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2. 유대인들은 예수의 가르침의 문제를 그의 가르침이 이전의 어떤 랍비에게서 배웠는지 알 수 없다는 데서 듭니다. 이것은 곧 말씀보다는 전통을 중요시한 태도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유대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 자체보다 우위에 놓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책망합니다(7:1-13). 그런데 이런 일은 교회역사를 통해서 늘 발생해 왔습니다.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말하더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기본적으로 말하는 것을 해석하는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3. 예수님의 도전은 이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가르침이든 인간의 혹은 전통에 의한 가르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의 대척점에는 스스로 지어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말은 모두가 다 스스로 지어낸 말입니다.

4. 우리는 여기서 이러한 고민을 올바로 감당한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바리새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고민하던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으로 유대인으로서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사람들 사이에 논란이 되어 만나보고 싶었지만 남의 이목이 두려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한 수 배우려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랍비여, 당신을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님이십니다."(3:2) 우리 생각에는 예수님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고위 관리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말에 큰 위로를 받을 것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본심을 다 아시는 예수님은 의외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3:3) 그 후 여러 말이 오고갔지만 니고데모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고민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나타난 행적으로 보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좋은 인상을 받고 돌아간 것이 분명합니다. 그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일색으로 비난할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7:51). 니고데모의 이 말을 지도자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니고데모의 출신을 의심합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 보라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나지 못하였느니라 하였더다."(7:52)

Ⅴ. 적용과 실천

1.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못하는 이유가 지식의 문제이기보다는 마음의 문제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보다 자기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설혹 안다고 해도 순종할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2. 바울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신자들을 핍박했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가 교회를 핍박한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온전한 순종의 길로 나갔습니다. 이러한 바울은 삼차 전도여행 중에 자신이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체포될 줄 알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알고 모든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그때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바울이 자신들의 권고를 듣지 않자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함으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더라.”(행 21:14)고 했습니다.

3.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습니다.
 1) 첫째, 기도 가운데 소원이 일어나는가? 빌립보서 2:13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과 소원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2) 둘째,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과 위배되지 않는가?
 (시 119:105) 사실 우리에게 향한 구체적인 뜻은 이 질문을 통해서 대부분 해결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에 비추어 보면 이것이 자기의 욕심에서 나온 것인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3) 셋째, 이것이 크리스천의 건전한 상식과 위배되지 않는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지나친 관심을 가진 나머지 중국집에 가서 자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를 고민하다가 결국 음식을 주문하지도 못하고 나왔다고 합니다.
 4) 넷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도움을 구해보았나? 어떤 사람은 스스로는 엄청난 고민에 싸여 있지만 목사님이니 상담원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의외로 쉽게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어느 분과 상담을 하면서 주일을 잔치집에 갔다가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죽은 자매님이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슬픔 속에 쌓인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은 주일성수를 하지 않고 잔치집에 가서 변을 당했다느니, 슬퍼하면 사탄이 틈탄다느니 하면서 더욱더 이 사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와 상담을 하면서 성경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벌로써만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음에 큰 위안을 얻는 것을 보았습니다.
 5) 다섯째, 문제의 성격을 잘 파악했나? 이 문제가 분별할 문제인지 아니면 결단할 문제인지? 예를 들어 가계를 열면서 주일성수를 할 것이나 말 것이냐는 결단할 문제이지 분별할 문제가 아닙니다.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겠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손해 볼 것 같아 기도해보겠다면서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도 많습니다.

4. 오늘 다룬 요한복음 7-8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 한 것은 1) 성경을 나름대로 상고해 본 것과 2) 이 성경을 해석하는 전통에 이것이 기반하고 있는가 하는 것

이었습니다. 그러한 가르침이 어떤 랍비가 가르친 것이고, 오랫동안 장로들의 전통으로 자리 잡았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험에는 통과했으나, 이들은 예수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지성적으로 성경과 당시의 일반적인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절대 속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요 2:24-25).

Ⅵ. 나가는 말

1.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7-8장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하나님의 사자로 알아보지 못했을까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요한복음 본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2. 다음 주에는 요한복음 9-10장을 중심으로 무엇이 바리새인들을 영적으로 눈멀게 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침반 바이블 BIBLE